

# 인간의 악마적 본성, 그 비밀을 벗긴다

악이 표출되는 행동양식 분석한 책 잇따라

20세기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 자행한 대량학살로 시작됐다. 세계 양차대전을 거치는 동안 저질러진 살인·강간·폭력은 이성을 갖춘 근대적 인간이 한낱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인간 속에 숨어 있는 악마적 본성'은 학문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심리학이나 사회생물학·인류학 등은 악마적 본성을 탐구하는데 열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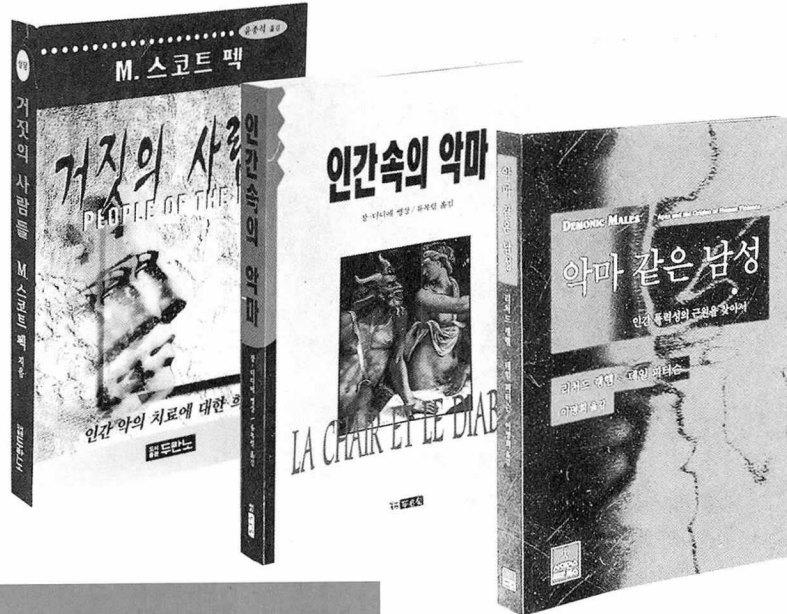
최근 출간된 세 권의 책은 인간이 지닌 악의 실체를 여러 시각에서 규명하려 했다. 악이 인간의 진화단계에 개입하는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추적한 《인간 속의 악마》, 정신과 치료의 사례를 통해 악이 표출되는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 《거짓의 사람들》, 인간과 같은 종에 속하는 침팬지의 행동양식을 분석해 '인간 폭력성의 근원'을 파고든 《악마같은 남성》이 그것. 이들 책의 공통적인 결론은 '인간 속에 악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 악의 실체에 접근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투족 학살현장을 찾는 데서 시작하는 《악마같은 남성》(사이언스북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진화론을 역추적함으로써 악의 실체에 접근한다.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리처드 랭햄과 아마추어 영장류 동물학자이자 과학저술가인 데일 피터슨은 침팬지의 생태와 아마존의 원시부족의 삶을 비교하면서 인간이 지닌 악마적 본성의 비밀을 벗겨낸다.

5백만년전 인간과 같은 조상을 가졌던 침팬지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동족을 공격하여 "가죽을 찢어 발기고, 팔을 부러뜨리고, 피를 마신다." 뿐만 아니라 같은 어미에게서 난 남자형제의 교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암컷을 강간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유전자 안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결론짓기는 너무 성급하다.

계곡을 돌아다니던 침팬지 몇 마리가 운 나쁘게 걸려든 다른 침팬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치밀한 계산과 정치적 목적 아래 첨단 무기를 사용해 싸우는 현대 전쟁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차이가 난다. 저자들은 문명사회의 정치와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존 저지대의 야노마피부족을 예로 들어 침팬지와 인간의 폭력성을 비교해 보인다.



세계 양차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악마적 본성은 학문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각 학문에서 악마적 본성을 탐구하는 열의를 보였다. 최근 출간된 세 책은 인간이 지닌 악의 실체를 여러 시각에서 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브라질 북부와 베네수엘라 남부에 살고 있는 야노마피족의 일상은 아주 평화롭다. 하지만 성적 질투나 간통 혐의 같은 사소한 이유로 싸움이 벌어진다. 이것은 미술이 걸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들의 싸움 방식 가운데 하나인 노모호리는 말 그대로 '비열한 계략'이다. 적을 초대해 융숭하게 대접해 마음을 놓게 한 다음 "도끼로 두개골을 완전히 깨고, 막대로 두드려 패고, 화살을 퍼붓는다."

또 와유 후우라고 열명이나 스무명 정도의 남자들이 특정 적을 죽이기로 한 후 기습을 해 적이 사는 마을의 아무 남자나 죽인다. 야노마피족 사이에서 이런 살인에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존경을 받는다.

## 뇌 속에 숨어 있는 악마성의 프로그램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철학자인 장-디디에 แบ상은 수많은 생물학적 예를 들어 인간이 벌이는 파괴적 행동이 신체의 물리적인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악마가 진화과정에 개입해 대뇌에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결과라는 것. '인간 속의 악마'는 두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뇌척수에서 분비되는 세르토닌은 격렬성·충동성 억제와 관련이 있다. 자살한 사람들의 경우 이 세르토닌이 현저하게 적었다는 것이 한 예다.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정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권태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권태를 못이겨 일탈행위를 하는 젊은이들에게서는 도파민의 과다 분비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중세적 의미의 악, 즉 신이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만든 장치라는 해석은 자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 속의 악마》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진화론에 '선과 악의 생물학', '악마 생물학', 그리고 '악마와 관계하는 인간학'을 결합시켜 새로운 진화론을 전개해 나간다. 진화과정에 개입한 악마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인간의 모든 능력을 계발해 나갔다. 결국 악마는 인간이 굴복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자기 안의 절대적수가 되는 것이다.

광기는 폭력성과 함께 인간 악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다. 정신과 의사인 스킵 팩이 쓴 《거짓의 사람들》(두란노)은 자신의 진료경험을 통해 맞닥뜨린 악의 실체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죽음에 대한 강박으로 평범한 일상의 리듬을 잃어가는 조지, 권총 자살한 아들이 사 용한 총기를 자신들의 다른 자식에게 선물

한 부모의 행동으로 불안정해진 아이의 사례, 환자로 접한 한 여성의 일방적이고 집요한 구애 등 비정상적인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악의 모습을 보여준다. 심층적인 연구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악을 실증할 수 있는 사례모음으로 볼 수 있다.

## 악과의 동거

최근 출판가에는 과거에 일종의 성범죄자들이었던 사드나 바타이유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다. 광기를 관리하는 체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푸코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음악에서는 폭력·마약·섹스·죽음을 소재로 다룬 데스 메탈(death metal)이 제도권을 위협하고, TV 광고에도 악마가 공공연하게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세기말적 문화 징후로 보기도 하지만,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가 악덕의 공존을 인정할 만큼 관용적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악마적 본성을 파헤친 이들 책 역시 모두 악의 존재를 긍정한다. 그렇다면 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들은 악의 존재를 인정한 이상 동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장-디디에 แบ상은 "악마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까지 고백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타협하는 것이다. 악마를 인정하고 악마의 속임수를 받아들이는 것. 한 술 더 떠서 악마의 계락을 파악하고 확실히 밑줄을 그어놓는 것이다. 유전자에 입력된 인간의 폭력성을 추적한 《악마같은 남성》 역시 인간이 지닌 높은 지능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다. 물론 뛰어난 기억력과 장기적인 사회관계가 새로운 형태의 공격성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인간은 500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혜를 습득함으로써 유인원의 과거에서 벗어났다. 지혜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상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고 권력을 지닌 몇몇 극악무도한 인간들의 비열한 계락을 은근시켜주는 이데올로기에 굴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간악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이면서 자신에게 이기는 방법을 찾는 여정이다. 카프카의 말대로 "악은 인간을 유혹할 수 있지만 인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이현주 기자